

<b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b> <b>제물포구·영종구</b> <b>서구·검단구</b>		<h1>보도자료</h1>		이제는 인천입니다 <b>2025 APEC INCHEON</b>
배포일자		2024년 4월 22일(월) 총 2매		
담당 부서	보건환경연구원	담당자	• 기후대기과장 이주형 ☎440-5471 • 담당자 이영주 ☎440-5472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-서울대, 기후위기 대응 위해 머리 맞대

- 주요 지점 아산화질소 측정 및 온실가스 배출원 분석·기후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-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와 온실가스 관련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5년간 인천 주요 지점의 아산화질소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별 배출원 추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.

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 대비 배출 농도는 매우 낮으나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 높아 정확한 농도 조사가 필요하다. 또한 탄소, 질소 등의 동위원소비를 분석하면 온실가스 배출원을 상세히 분류할 수 있어,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.

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실태조사에 더해 대기 중 아산화질소 모니터링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, 인천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추정으로 기후변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

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연구원이 가진 기반 및 넓은 연구주제 탐구 경험과 대학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역량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” 며, “인천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현실성 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또한, 온실가스 농도 추적 및 기후변화 원인 분석을 통해 미래 기후 예측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장 안진호 교수는 “지자체에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전역의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원 변화 연구에 매진하겠다” 고 말했다.

### <관련사진>

